

## 자주적 관점 강조한 교양인을 위한 한국사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펴낸 이만열 교수

이만열 교수(62, 숙명여대 한국사학과)가 펴낸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바다출판사)는 한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동이족이 우리의 조상이냐는 문제를 필두로 역사의 쟁점을 다룬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요소가 있는데 역사를 보는 독특한 관점이 그렇다.

### 자주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우리 역사

‘자주적 시각으로 본 우리 민족사’라는 부제에 잘 나타나 있듯, 이 책은 자주적 시각으로 우리 역사에 접근한다. 이만열 교수가 자주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유교사관과 식민사관에 침윤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교사관이 우리 역사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 측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 도덕적 엄정성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다만, 중국 편향적 시각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중국의 입장에 치우친 탓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주적 역량이 사라져 버렸지요.”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 강점의 근거로 내세운 식민사관과 타율사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식민사관은 일종의 정체(停滯)사관으로 우리 역사에는 발전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변동과 사회발전이 없으므로 식민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타율사관은 우리 역사는 출발부터 외세가 개입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기차조선과 한사군을 부각시킨 것이 단적인 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강점은 역사의 순리라는 논리를 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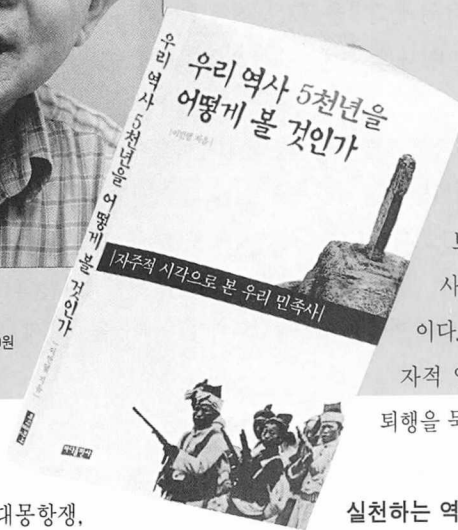
“정체사관과 타율사관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럽고 긍정적이며 자주적인 측면을 애써 부정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사실은 축소하고, 외침을 받은 것은 과장하지요. 학계의 업적을 토대로 식민사관이 왜곡한 우리 역사를 바로 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단군에서 구한말까지 우리 역사 5천년을 훑으면서 영광스런 사건을 재조명한 것도 왜곡된 역사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제3장은 광



이만열 교수

바다출판사/A5신/314면/8500원



“정체사관과 타율사관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럽고 긍정적이며 자주적인 측면을 애써 부정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사실은 축소하고, 외침을 받은 것은 과장하지요. 학계의 업적을 토대로 식민사관이 왜곡한 우리 역사를 바로 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거나는 고초를 겪었다.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는 역사 공부를 꼽는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 역사의식이 싹 트고, 역사발전의 믿음도 생겼다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신뢰하는 학자적 양심에 비춰 명백한 역사의 퇴행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개토대왕, 살수대

침, 화랑도, 고려의 대몽항쟁,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같은 민족사를 빛낸 주인공과 사건을 소개했다.

이교수는 우리 사회의 턱없이 낮은 역사인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역사의식이 빈곤한 원인을 ‘우리 역사를 잘 몰라서’라거나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수준이 형편 없어서’라고 변명만 일삼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선 곤란하지요. 일반인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계의 연구수준을 개탄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직접 다가설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함양을 위해 이교수는 박은식의 역사서 읽기를 권한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현대사 인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최초의 책이기 때문이다. 국사학계의 역사 서술 또한 이 책 두권에서 발원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설명이다.

이교수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단에서 쫓

### 실천하는 역사학자

“그렇다고 역사발전이 눈에 띄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하지요. 단기적으로는 나선형의 발전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움츠렸다 나아가는 것을 거듭 하면서 조금씩 전진하지요.”

이만열 교수는 직함이 여러 개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기 때문이지만, 모든 활동이 역사 연구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제3세계 노동자 인권문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희년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 안됩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설움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이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 차별심리를 통해서도 역사의식의 빈곤을 본다. - 최성길 기자